

# 자바의 농촌교회와 유기농업

## *Rural Javanese Christian Church and Organic Farming*

스와르토 아디(Suwarto Adi, 인도네시아)

### 서론

유기농업 프로그램은 2000년대 이전부터 투르까자야재단(Trukajaya,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GKJ 교단의 손길)에 의해 시행되어 왔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농민들로 하여금 화학비료의 폐해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목적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식량 자급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유기농산물의 높은 가격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몇몇 농촌교회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두 가지 목적 외에 이제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자바기독교단 내의 교회 간 협력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기독교단(GKI) 및 다른 지역교회와의 협력관계도 조성해내는(generate)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지역 차원에서 교회연합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연구조사 차원의 보고서가 아니라 회고문(reflection)입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하여 수년전부터 시행해온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이들은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에 관여하였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보고서의 발표를 통하여 더 진전된 토론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유기농업 : 생태에서 경제와 교회연합운동으로

뚜르까자야재단의 유기농업 프로그램은 1998년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기농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뚜르까자야는 바이오 가스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농민들이 화목연료를 적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산림황폐화에 대한 자각이 일기 시작하였는데, 이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고, 에너지 사용의 대안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오 가스 프로젝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유기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유기농업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농업을 시행하기 전에 바이오 가스 프로젝트를 먼저 소개한 이유입니다.

농민들에게 유기농업을 소개하는 첫 단계에서 약간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나 기업에 의해 화학비료와 종자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보다 쉬운 생산 방법이었습니다. 가격은 농민들에게 중요한 이점이 되지 않았고, 당시에는 건강 문제도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은 화학비료의 사용이 토양에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줄여 말하면,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에는 좋은 결과를 내기보다 장애물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업 프로그램이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생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최근 생태적인 면 외에 다른 면을 추가하였는데, 그것은 경제성입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시장 개념의 접근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교구나 교인들에게 항상 이 운동을 알리고 있고, 유기농업 시스템으로

생산한 유기 농산물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몇몇 의사를 초청하여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유기농 산물을 건강 차원에서 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유기농산물을 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한 예로 쌀은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협력관계, 특히 지역과 교단 차원의 다른 교회들과의 협력관계도 이루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주 흥미로운 일로서 도시의 많은 교회들이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촌교회와 손잡기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프로그램 혹은 활동은 현재 생태문제에서 경제적인 면으로, 궁극적으로는 교회연합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생명농업과 교회의 역할

앞에서 언급한 배경을 본다면, 우리는 교회 활동과 농업활동이 서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양자의 활동은 분명 서로 모순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려면, 각각의 생각이 소통될 수 있도록 전달되고(translate)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상호 소통적 전달은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편을 도와주는 것(사회적 실천)은 다른 편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양쪽은 공통의 이해에 이르게 되고, 또 다른 협력과 보다 진전된 상호작용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소통의 일치화 과정(translation process)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 유기농업은 이런 소통의 일치화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유기농업의 개념은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오랜 과정 속에서 생긴 것입니다. 자바기독교단과의 논의 과정 속에는 어떻게 하면 농촌목회자들이 더 나은 삶(충분한 재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목회

적으로 돌보고자 하는 교구의 필요를 존중할 수 있을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글쓴이들도 참여하여 진행된 오랜 논의 끝에 유기농업이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 없거나 적은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의 교회는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습니다. 자바기독교단(GKJ)의 총 310개의 교회 가운데 약 170여개의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룹으로 접근하면 - 약간의 차이가 있고, 다양한 농사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 15개 그룹이 있습니다. 유기농업이 시행된다면 자바기독교단은, 글쓴이들이 사역하고 있는 투르까자야재단을 통하여 도시교회에 판매나 유통망을 만들어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기농산물에 더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유기농산물을 통하여 자바기독교단은 지역교회의 재정 수입을 향상시키고, 결국은 목회자들이 더 나은 사례비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바기독교단은 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교단 내부의 지역교회 간에 혹은 타 교단과 함께 교회연합운동(ecumenical movement)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프로젝트를 타종교와 협력하여 실천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이슬람과의 종교간 프로그램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다른 종류의 선교학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과 대화의 선교입니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지역적이고 지구적인 환경운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 실천을 통하여 온실효과도 감소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도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자바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바기독교단에서 이 프로젝트를 충실하게 시행한다면 교회는 환경 개선과 보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념의 연결을 위해, 어떤 사업이 만일 사회적 전망을 가지고 시행, 운영될 경우, 사회적 기업(social entrepreneurship)이 논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도입되어 교회 내부나 지역공동체 사람들이 부딪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social)이라는

말을 첨가하여 강조하였는데 이는 교구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업(bussness)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업적인 접근으로 빈곤과 같은 사회적 현상을 변혁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a vehicle)이며, 그 활동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과 ‘사회적 기업’ 이 두 용어는 수입의 창출, 사회적 망(교회연합운동 및 타종교와의 연대), 경제적 문제(목회자와 교구의 수입)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교회의 사업, 생태(기후변화), 그리고 윤리문제(다른 사람과의 공생)의 중요성을 상호소통(translate)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이런 소통의 충실한 과정이 약 2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역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것은 2009년 4월에 시작되었는데, 투르카자야재단이 교회와 유기농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을 때입니다. 이 워크숍은 자바기독교단의 사무국(Executive Body)에서 지원하였으며, 경제적 향상을 위한 농사활동이 지역교회 내에서의 교회연합운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교회와 사회 간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의식향상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그들 사이에 협력 또는 망(network)이 짜여져서 경제적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연대(사회적 자본)가 이루어질 것으로, 특히 유기농산물의 채널과 판매를 위한 연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연대와 망은 당시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망이 없이는 농촌교회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이 적정 가격으로 도시교회에 운송,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아래는 농촌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몇 사람이 유기농사와 사회적 기업의 연결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다른 사람들과 교인들 사이에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역업자, 농민, 공무원, 혹은 다른 생산자 곧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중매인, 중개인, 가격평가인(price assessor) 등이

있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은 능력과 기술의 채널을 서로 나누는 것이며, 이로써 큰 성과가 있을 것인데, 이는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형제 의식입니다.”(보요라리 지역 목사, 2010)

연결이나 소통(channeling)은 교회 구성원들을 연합하게 하고, 생산 활동에서 협력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 목사는 이런 활동이 교회의 봉사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호간의 연결망이 없다면 사회적 변화를 위한 교회의 능력은 아무 것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교구와 교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연결하고 맺어주는 것에 실패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 변혁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개념이나 실제적인 매체가 필요합니다.

“기업이라는 말에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교회는 사회 변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사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변혁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은 사회문제 및 지역사회봉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입니다.”(스마랑시의 지역교회 옹호자, 2011)

‘사회적’이라는 말이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몇몇 목회자들은 ‘사회적’인 것에 대해 큰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은 아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목회자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을 통해 사업의 의미는 연대와 사회적 망을 이끌어냈습니다.

“자바의 상황에서는, 다른 농촌지역과 비교해 보면, 교회는 사업문제에 소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입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제 의견은 교회는 교인들 혹은 교회 자체가 운영하는 사업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사업 속에 인간적 가치(humanity values)가 없다면 차라리 가난한 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자바의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닙니다.”(푸르워레조 지역의 목회자, 2010)

이 목회자는 사업은 교회에 의해서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이 사업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 교회의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적 접근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그들이 살고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자바나 인도네시아의 상황에서 교회활동의 기반이 되는 후원금은 정부나 납세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업은 교회 운영의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 것인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은 상호소통(translation)이 내재해 있는 프로젝트의 실행입니다. 기본적인 이해의 차원에서, 상호소통은 하나의 일(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게 만드는 시도이며, 행동을 기꺼이 함께 하도록 만드는 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바의 농촌상황에서 생명농업은 사회적 기업이나 사업적 접근을 통해 목회자, 교구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동참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업이나 판매의 다른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 결론과 확인

사회적 기업이 자바교회들 가운데에 사회변혁을 일으키는 의미있는 연결고리의 개념이라고 결론짓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에 사회적 기업은 교인들에 의해 거부당했는데 그것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부업을 해야 하는 목회자의 행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긴장 관계를 조성하였고, 몇몇 상황은 교회 내부와 교회 간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기업의 진전된 개념으로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와 성취 즉 연대를 이루게 하였으며, 교인과 교회가 갖고 있는 사업이나 기업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기업의 개념을 고양하고 보급하려는 시도는 자바교회 내에서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실제로 사회적자본과 사회적기업을 더욱 지속시킬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몇 분이 의미있는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드레아스 윤통 위요노 목사,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회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유문서(sharing paper)를 작성한 자바기독교단의 사무총장 시몬 줄리안토 목사, 자바기독교단의 '교회의 경제적 향상 프로그램'(program of Congregation Economic Improvement) 담당자인 밤방 푸지안토 목사 등입니다. 이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이 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글쓴이들에게 있습니다. ●